

세계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전환점, 서울 G20 정상회의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다”



2010년 11월 11일~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G20 SEOUL SUMMIT 2010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서울특별시



권력을 향한 '과잉 충성'은 때로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검찰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렸던 대학강사 박정수씨에 대해서 기소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쥐 그림을 그린 박씨를 구속시키려다 법원으로 부터 영장이 기각 당하는 망신을 경험한 바 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쥐'에 집착하는가. 그러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충성'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군가를 더욱 민망하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쥐'에 집착하는 검찰의 행동은 쓸쓸함을 안겨준다. 박씨가 홍보포스터에 쥐가 아니라 고양이나 소나 다른 동물을 그렸어도 공안 검찰이 출동했을까. 검찰이 왜 그토록 '쥐'와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2011.1.20 <미디어오늘>

지난해 방한한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퀴는 조사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모든 공직 수행자들은 당연히 시민 감시를 받아야 하고 명예훼손을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의 공식보고서는 2011년 6월에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괴기

인권위가 인권위다운 세상을 위한 이야기

권력

창간호 및 폐간희망호

통권 1호

인권위거정위원회

생각들

무엇이든 불리한 것은 숨기고 정보보다는 정권유지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만 관심을 쏟는 군사정권의 비도덕성 때문에 우리사회 전체가 병들고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재는 일종의 질병이다. 그 질병이 없어져야 검찰도 법원도 국민도 사는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1995년 3월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259쪽에서.

: 그의 입도 아주 가끔 옳은 말을 뱉을 때가 있다. 하지만 ‘군사정권’이 ‘군사정권’에만 있는 것일까?

국회, 내각, 사법부, 검찰이 걸만 번듯할 뿐 실제로는 그 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국정백사에 판을 치는 경우라면 이것은 참다운 민주가 아니라 가면뿐인 민주인 것이다.

〈조선일보〉 1988년 1월 19일자 사설.

: 23년 전의 사설은, 23년 전에만 유효한 게 아니다.

인권위가 여타 국가기관과 입장이 같다면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 인권위가 다른 견해를 표명한다고 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를 하고 정부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정책이 재조정되는 과정일 뿐이다. 이런 절차 없이 정부가 국정운영을 밀어붙인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아니겠는가?

인권위가 이런 역할을 하려면, 인권위는 공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권의 ‘편’에 서야 한다. G20 경호보다는 그에 따라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를 살피고, 전교조 비판보다는 교사의 결사의 자유를, 국방보다는 병역 거부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인권위의 임무다. 이것을 ‘편향적’이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인권위는 원래 그렇게 ‘인권편향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든 국가기구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인권위 되살릴 기회, 아직 남아 있다' 기고문에서.



표지이야기 사춘기 중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했다.

그 말에서 희망을 보았었다.

인권위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었다.

그 작은 희망에

더 이상 상처내지 말아다오.

더 이상은 쓸쓸하지 않도록

본지는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연의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인권이 아니라 이권과 정권의 수호자가 되려는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을 걱정하며 본지는 제작되었습니다. <거꾸로, 인권>이 더 이상 발간될 필요가 없도록 하루빨리 국가인권위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희망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실린 기사의 무단전제와 복제를 적극 권장합니다.

이 달의 독자



“지금 여러분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병철 독자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번지 금세기빌딩 13층에 근무하고 계신 현병철 독자. 「인권」 잡지 창간호부터 독자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2009년 7월부터 ‘뜻한 바 있어’ 꼼꼼히 훑어보는 열독자가 됐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인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나도 이제는 인권을 위해, 특히 박해받는 지인의 인권을 위해, 무언가 행동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과 사명감에 부풀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이 제게 부여한 이 엄청난 소명을 생각할 때 저는 경건함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취임사에 이 말을 써 넣을 땐 지인에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도 함께 엄습해 왔다.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균형감각으로” 난 틀림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병철이 파이팅!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문제는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균형감각이 ‘인권’과 무관하다는데 있었다. 그래서 그의 결연 그의 선의를 오해하는 ‘안티팬’들이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첫 출근부터 말썽이었다. 스토크들은 집요하게 질문을 쏟아냈다.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야, 응? 현병철 독자는 부아가 치밀었지만,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균형감각이 그의 입을 다물게 했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첫 출근부터 저지라니, 당신들이 무슨 저지(judge)라도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저지, 아니 저질 팬들에게 심각한 두 마디 충고를 날렸다.

“이런 자리에선 이야기 할 수 없다. 취임사에서 이야기하겠다!”

“지금 여러분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속 좁은 사람들은 현병철 독자에게 “언제부터 인권타령이었냐”고 과거를 들먹이지만, 그도 이 바닥에 와서 주위들은 명언이 있다.

“인권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과거가 무슨 필요인가)

“인권(위원장)은 양보나 유보가 있을 수 없다!”

「인권」지 애독자 현병철 씨가 생각하는 위원장직은 거창하다. “위원장은 천부인권이 아니라, ‘청부인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청와대에서 부여한 권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지인의 정책에 맞서고 질타하고 감히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산참사도, 촛불강경진압도, 민간인 사찰도 따지고 보면 잘 해보려는 충심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희생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나 나라의 녹을 먹는 기관에서, 아무리 인권기관이라도 그렇지, 시시때때로 시시비비를 가려야겠느냐, 그게 진정 애국하는 길이나, 그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음을 몰라주니 답답한 노릇이지요.”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 절절히 느껴진다.

취임사에서 현병철 독자는 이렇게 일갈했다.

“인권위 설립 이전의 한국사회와 인권위 설립 이후의 한국사회는 분명 다릅니다!”

취임 1년여 만에 그가 물고온 변화의 성과는 눈부시다. 좌우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일치한다.

“현병철 취임 이전의 국가인권위와 취임 이후의 국가인권위는 분명 다릅니다!”

편집자가

현병철 독자에게

물려오는 봄기운이 몸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독자님의 따끔한 일성에 졸음이 화들짝 달아났습니다.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균형감각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니 감동이 배가 됩니다. 독자님을 음해하려고 달려붙었던 이른바 안티팬, 혹은 인권활동가 나무랄지도 독자님의 추상같은 호통에 움찔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니요. 아~, 얼마나 가슴 떨리는 선언입니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천주교에서 ‘내탓이오’ 스티커 붙이기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당신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를 스티커로 대량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거리마다, 차들마다, 넘실대는 당신의 말씀 “지금 당신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아~, 생각만 해도 멋있어!

당신의 지인마저 따라할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은, 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캠페인으로요.

‘내가 해봐서 이는데 정부’ 출범 이후 예산절감과 발행부수 조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개인구독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해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암튼 해봐서 안다니까,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